

예배 순서



신앙고백 다함께

찬 송 384장 / 다함께

1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x2

2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x2

3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x2 아멘

기 도 가족대표

성 경 이사야 58:11 / 인도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말 씬 물 댄 동산 같은 인생 / 인도자

찬 송 559장 / 다함께

1 사철에 봄바람 불어잇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잇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폐 회 주기도문 / 다함께

2025년 추석 명절 가정 예배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문교회

경기도 평택시 죽백 1길 67
T.654-4575

물 댄 동산 같은 인생

민족의 명절 추석입니다. 특히나 올해는 긴 연휴를 주셔서 그리운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짐을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물 댄 동산' 같이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 댄 동산 같은 인생이 되게 하시기 위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인지를 잘 모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그저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올해에도 결과를 확신할 수 없어서 고민하며 걱정할 일들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을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인도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는, 결과를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풍성한 샘의 근원으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물 댄 동산이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따라가는 겸손함과 순종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으며,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 댄 동산 같은 인생으로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풍족하고 편안했던 시간들도 있었지만, 메마른 사막과 같이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만족'은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이 넉넉한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만족을 이야기할 때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거해서 말씀합니다. 풍족함을 누리다고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면 그것은 결코 만족할 수 없는 불안과 염려로 가득찬 빈곤과 궁핍함입니다. 그러나 비록 부족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평안과 감사를 누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만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 단지 심리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메마른 곳에서도 물이 끊어지지 않는 '물 댄 동산'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라는 마르지 않는 생명의 근원에 연결되어 있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수를 공급받으며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뼈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뼈는 우리의 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견고하게 만드신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어떤 메마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만족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시련과 고난에도 꺾이지 않는 견고함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나도 다른 세상의 가치관들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너무 약하고,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세상에서도 우리가 '물 댄 동산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며,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견고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물 댄 동산 같은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연결되어 만족을 누리고, 세상에서 견고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서, 세상의 메마른 곳에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물 댄 동산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귀한 은혜에 감사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